

니너 76

2015 상반기

<u>4</u>	기획특집 : 운동하는 여성들
5	우리를 위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9	소리치는 몸, 운동하는 몸, 싸우는 몸
13	몸치탈출의 마지막 티켓
<u>16</u>	삶의 돋보기
16	모과나무의 전설
21	쉬고 또 쉬다보면 우리 마음에도 꽃이 필까요?
<u>25</u>	만나고 싶었습니다
26	나마스떼! 열림터 생활인의 바른 자세를 책임지는 요가지도사 나유미
31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아름 회원
<u>37</u>	성폭력, 이럴 땐 이렇게
37	오래전에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도 고소할 수 있나요?
<u>40</u>	열림터 이야기
40	하반기 열림터 다이어리
<u>42</u>	본편보다 재밌는 후일담
42	이주여성과 만난 나의 삶: 시민강좌 '인권, 평등, 함께 살기'
<u>46</u>	상담소 동네친구
46	cafe765 배진희, 김종상님
<u>50</u>	뭔다! 상담소
<u>52</u>	훈훈한 기부
<u>54</u>	시끌시끌 상담소
<u>55</u>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운동(運動)하는 여성들

“운동 좋아하세요?”라고 물으면 장난처럼,
“어떤 운동이요?”라고 되묻기도 하지요.

운동(運動)은
'건강의 유지나 증진을 목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일'
을 의미하는 동시에
'사회 안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조직적인 활동'
역시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상담소는 여러 해 진행해오고 주목해왔던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의 경험을 통해,
이 '운동'과 그 '운동'이 그리
다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지난여름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했던 활동가 잇을과 참여자 케이님이
'운동'이 정말 '운동'이 되어버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한 상어님은 마음이 맞는 여성들과의 자발적 모임을 통한
몸/치/탈/출/기를 들려줍니다.

이번 기획특집을 통해 여성운동(運動), 함께하시겠어요?

우리를 위한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잇을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다채로운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기획하고 실행한 바가 있다.
당시 나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를 기획하고 매트 위에서 똥구는 날이
곧 다가올 줄은 미처 몰랐다.
2014년 여름을 훌쩍 가게 한
'난다 똥다 다른 몸'이 그것이다.

난똥다! 12주

여성들도 격하고 거친 운동에 흥미를 느끼고 도전하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때
때로 운동을 시작한 이유를 이해받지 못해 '특이하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또한
다른 남성들과 비교되는 가운데 '역시 약하다'는 시선을 받으면서 '여성에게 어울
리는' 다른 중목을 권유받거나 운동 자체를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 난똥다 훈련
장에서는 여성들이 함께 운동을 하면서 다른 곳과 '다른'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
요했다.

평소 운동경기와 가깝지 못했던 우리들은 훈련에 앞서 여성야구를 관람했다. 실은 관람했다기보다 공터 귀퉁이에서 지켜본 것에 가깝다. 서울 끝머리에 있는 작은 야구장은 관람석이 따로 없었고 야구감독님의 시원시원한 호의로 선수대기 석에 앉지 못했다면 땀으로 샤워를 했을 게 틀림없다. 옆치락뒤치락하는 경기에 점차 절도 있는 구호와 손뼉으로 응원에 열을 올려가며 야구규칙도 배웠다. 여성야구인들의 날쌔고 씩씩한 동작, 걸걸한 유머에도 묘하게 빠져들었고 야구복을 입은 그녀들의 몸동작과 매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편으로 여성스포츠의 열악한 환경을 새삼 생각해보는 계기도 된 것도 물론이다.

몸을 이완하고 소리를 내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나 역시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크고 우렁찬 고함을 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왔다.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고 경직될 때 호흡이 가빠지며, 넓고 멀리 뻗어가는 소리를 내지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낮설게 소리내기에 집중하고, 훈련해보았다. 작은 목소리만큼이나 감정표현도 작고 소극적이지는 않았는지, 적당한 분노를 표현해야 하는 순간에도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에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함께 생각해볼 수 있었다.

체력훈련은 신체적 건강은 물론 자신감도 증진시킨다. 몸을 깨우고, 몸 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깬다. 신체를 크게 쓸 수 있는 동작이나 운동을 중심으로 체력훈련을 했다. 여성들은 대개 공간을 작게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서 공간을 크게 활용하는 것에는 서툰 경우도 많다. 보폭, 힘 있게 펼쳐지는 몸, 뛰어오를 수 있는 높이, 큰 움직임의 느껴볼 수 있었으면 했다. 누군가에게는 잊고 있던 운동의 즐거움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운동동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정확하게 배우는 첫 시간이 되었기에 체력훈련의 모든 내용이 유용했다.

가장 긴장했던 것은 기술훈련이었다. 대개 '자기방어훈련'에서 연상하는 것은 눈알을 찌르거나 고환을 걷어차는 호신술인데 많은 신체단련 없이 할 수 있는 단회의 치명적인 공격방법일 수는 있지만 전혀 연습해보지 않고서 실제 순발력

있게 해내기란 어렵다. '각자가 생각하는 위험상황', '내가 대응해내고 싶은 상황'들을 나누고 훈련해보기 전까지는 기술훈련이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할지 궁금함과 함께 초조함도 들었다. 떠올리기만 해도 불안하거나 두려운 상황들을, 몇 주를 부대끼 동료들과 공격자-방어자의 역할을 주고받으며 반복적으로 연습해보았다. 두려움이 상상보다 수십 배는 생생해서 놀랐고, 예상치 못한 짜릿함이 느껴져 더 놀랐다.

달-라-지-다

우리는 빠르고 강해지기 위해 훈련했는가? 그렇지 않다. 늘 내가 데리고 살고 있는 내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현명하다는 것을 느꼈다. '여성이 조심하고 반성할 일'로 강요되던 문제들을 '여성에게 부당하게 요구되는 것들'로 바라보고 우리의 욕구와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여성이니까' 이렇게 해야만 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온 것에서 조금은 벗어나, '나답게' 살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볼 수 있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것의 상당수는 '성폭력'이다. 데이트상대나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을 침해당하는 경우, 일과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의 성희롱 등 모든 폭력적 상황을 몇 주의 훈련으로 모두 피하고 가해자를 제압할 수 있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실제 공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떤 싸움으로 끝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두려움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대응할 방법은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그 '가능한 것을 배우는 일'은 새로웠으며, 일상에 힘을 불어넣었다. 전 같으면 몸을 얼어붙게 했을 긴장감이 이제는 달리기 직전 준비자세처럼 온몸의 에너지를 단단히 모은 긴장감으로 변화했다.

소리치는 몸,
운동하는 몸,
싸우는 몸

케이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난편다' 참여자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난편다에 도움을 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욕심이 생겨 가까운 도장에 케틀벨 3개월을 덜컥 등록했다가 지금은 또 책상 앞에서만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나의 가장 특별했던 12주를 생각하면 늘 흥분된다. 후기발표회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난편다 자료집을 받아보시며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이야기를 통해 상담소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이후에도 또 다른 활동을 계획하고 계속 해나가는 것은 각자의 결심이지만, 그 결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지지해주는 동료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좋은 변화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자신이 느낀 것을 전하고 함께 하는 동료의 되어주는 것이다.

※ 있을_슬플 때면 혼자 막춤을 춰보면 어떨까요

“너는 운동은 안 돼.” 몇 달 간 열심히 수영을 배우다가 추운 겨울을 맞아 수영을 대체할 다른 운동을 고민하던 나에게 아빠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스포츠 클라이밍을 시작해볼까 한다는, 나를 결의에 찬 진지한 얼굴 앞에서 아빠는 굳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의 기억을 소환해냈다. 아빠와 내가 처음으로 축구공을 들고 잔디구장으로 놀러 나갔던 날 나는 아빠의 기대만큼 공을 ‘제대로’ 차지 못했다. 계속되는 헛발질에 실망한 아빠는 그 이후 나를 ‘운동신경 없는 애’로 규정시켰고, 이후 나에게 그 때의 평가를 만회할 기회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공을 가지고 놀아본 적 없는 아이가 축구장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능숙하게 공을 뺑 차는 것이 더 이상한 스토리 아닌가 싶지만, 아무튼 ‘운동신경 없는 애’라는 아빠의 평가는 유년기의 나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학교의 체육수업은 개개인의 흥미나 능력은 고려하지 않았고, 획일적이고 집단주의적 성격에 거부감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나는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안할래.’, ‘나는 해도 안 되는데 뭐.’라는 패배의식이 앞섰다.



언니네트워크 7회 페미니즘 캠프 '시스터액트'에서의 케이

20대가 되어 여성주의자들을 만난 후에는 '운동하는 여자들에 대한 전망이 생겼다. 어디에 가면 여자들끼리 축구하는 모임이 있다, 어느 캠프에 가면 여자들끼리 운동회를 한다, 이런 말들을 주워듣고는 나도 그런 곳에 섞여서 같이 땀을 흘리는 상상을 하곤 했다. 고백컨대 나는 활동적인 성격이 아닌데다가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지만, 여자들끼리 하는 운동회라니 그런 건 확실히 재미가 있을 것 같았다. 운동장을 지키고 서서 A부터 D까지 구르기 점수를 매기는 체육교사도, 사소한 교칙 위반에 대한 벌로 운동장 뽕뽕이를 시키는 학생주입도, 여자 반의 체육 시간이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창문을 내다보던 남자애들도 없는! 그리고 언니네트워크 페미니즘 캠프에서 '그녀들의 땀 냄새'라는 이름의 운동회를 만났다. 타고난 운동신경에 대한 걱정, 타인의 시선에 의한 움츠림 없이 몸을 움직이는 경험이 얼마나 자유로운 느낌을 주는지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처럼 대단한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운동에 대한 얇은 열망과 약간의 의무감은 '저질체력'이라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기인식 앞에서 막혀버리기 일쑤였고, 운동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잘 시간도 부족한데.' 라는 말 앞에서 무력해졌다. 그렇게 하루하루 특별한 운동 없는 일상을 살며 어찌면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일지도 모른다는, 사이버 의사 같은 진단을 스스로 내렸을 때쯤 대찬 호랑이 사진이 박힌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웹자보가 내 눈에 들어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과 동시에 수영강습에 등록하며 나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보고자 하는 거대한 포부를 품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삶의 반경을, 행복의 가능성을 넓히는 일임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걸까.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시작하며, 나는 3개월의 훈련을 통해 몸을 움직이는 것에 좀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몸이 지나간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을, 특정한 공간 안에서 최소의 지분만을 가질 것을 교육 받으면서 어느덧 내 몸 안에 각인되고만 규칙들을 느슨하게 풀어둘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았다. 몸·소리 워크숍, 체력훈련, 기술배우기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경험한 것은 주먹을 세계 쥐고 집중하는 순간의 낯선 긴장감, 학창시절에는 연습보다는 포기를 선택하곤 했던 그 '뒤구르기'를 성공한 순간의 환희, 한여름 땀병에 달궈진 본격 유도도장에서 줄넘기, 태권도, 맨몸운동들을 연습하며 겪은, 움직이는 내 몸에 대한 느낌들이다. 내가 어떻게 구르든 몇 번을 실패하든 잘했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참여자모집 웹플라이어

고, 다시 한 번 해보자고 말해주신 강사님과, 서로 북돋우며 같이 운동하던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경험이었다. 나에 대한 재발견과 더불어 같이 운동하는 재미에 빠져들 때쯤 프로그램은 끝이 났다. 함께 마니산에 올라 정상에서 도란도란 도시락을 꺼내먹었던 기억도, 후기발표회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날렵민첩상', '조용한존재감상', '포토제닉상' 등의 상장을 수여받던 기억도 벌써 새록새록하다.

소식지에 후기를 써보지 않겠냐는 전화를 받고 '저 요즘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변명하듯 꺼냈다. 후기발표회에서 '운동을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사기성 풍기는 멘트를 던지고, 자신감이 푹푹 묻어나는 말투로 '이제는 어떤 운동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다짐을 했던 것과는 달리, 추운 날씨와 떨어지지 않는 감기를 핑계거리로 삼으며 새로운 운동을 아직 시작하지 못한 지금의 상태가 조금 민망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전혀 내 것이 아니었던 '운동'이라는 키워드가 점점 익숙해져가고 '부족한 운동신경'과 '저질체력'을 넘어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굉장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팬스레 겁먹거나 움츠러드는 것 대신, 부당한 상황에서 할 말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걷어차는 것 대신, 일상의 공간 속에서 내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고 불가피한 갈등과 싸움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게는 주먹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 케이_수영이 좋아서 수영선수가 되고 싶은 페미니스트 사람

몸치탈출의 마지막 티켓

상어 | 본 상담소 회원, 몸치탈출 회원

여성쿼어댄스팀 큐캔디의 몸치탈출 댄스교실이 열렸다고 들었다. 그리고 오픈 10여 분만에 매진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하지만 언니네트워크 후원파티에서 마지막 수강권이 운명같이 경매에 올라왔다. 평생 몸치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슬슬 새로운 운동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이 강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티켓을 손에 쥐었다.

춤,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중학교 때 춤을 잘 추고 싶은 마음에 힙합댄스학원을 한 달 간 다닌 적이 있다. 매 수업마다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것만 기억난다. 왼손과 오른발을 같이 움직이는 것이 어려웠고, 쉬지 않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 몸치 중의 몸치라는 것을 확인하고, 힙합댄스 초급반으로 나와 춤의 관계는 끝이 났다.

그리고 15년쯤 흘러서 신청한 댄스교실은 순수하게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안 움직여 버릇한 몸을 써보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몸치탈출 댄스교실은 일상에서 해보지 못한 움직임을 정해진 순서대로 가르쳐줄 것이라고 기대됐다. 그러니 춤이라는 것이 더 마음 편하게 다가왔다.

또, 보이그룹팀이니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지인들에게 춤을 배운다고 이야기하니 다들 무슨 춤이냐고 물었다. 보이그룹 엑소(EXO)의 ‘오르렁’이라고 대답할 때, 커밍아웃한 지인과 커밍아웃하지 않은 지인의 첫 반응은 매우 달랐다. 커밍아웃하지 않은 지인들은 매번 왜냐고 묻는다 (왜 보이그룹의, ‘오르렁’이냐고). 여성퀴어댄스팀의 댄스교실에서 퀴어들과 함께 춤을 배우면서는 여성스러워져야 한다는 압박 없이 움직일 수 있어 편안했다.

몸치탈출

6주 과정의 몸치탈출 댄스교실이 끝나고 마지막 뒤풀이를 하면서, 우리는 수업이 끝났음을 매우 아쉬워했다. 바쁜 직장인/학생에게 일주일에 한번, 늦은 시간에 진행되는 2~3시간의 강도 높은 운동은 놓치기 싫을 만큼 적절했다. ‘이 댄스강습모임을 한 번 더 해볼까’ 라는 즉흥적인 제안으로 우리는 매우 빠르게 모임을 결성했다. 몸치탈출 댄스교실 수강자들이 만든 모임이니 이름은 ‘몸치탈출로 계승하기로 했다. 강사는 큐캔디에서 공식적으로 초빙하고, 10여 명 정도의 소규모 댄스강습모임을 만들었다.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에어로빅 모임” 같은 곳을 지향하기로 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 칼로리만큼 맥주와 안주를 섭취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모임이 되기로 했다. 운동에 중점을 두지만 몸무게는 신경 쓰지 않고, 재미에 중점을 두지만 몸치탈출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함께 즐거웠다’는 것이 이 모임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였다.

우리는 수업을 하면서도 시도 때도 없이 호응을 쏟아낸다. 동작을 배울 때에도, 가끔은 스트레칭을 할 때도 누군가 능숙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 온갖 찬사와 탄성이 터져 나온다. 웃음도 쉽게 터져 나오고 농담도 쉽게 나온다.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웃으면 대부분 남자였던 체육 선생님께서 혼났던 기억이 있다. “진지”하지 않다고. 하지만 웃느라 진도를 나가지 못하거나, 할 연습을 끝내지 못했

던 적은 없다. 웃음과 즐거움은 운동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운동을 지속하게 하고 더 힘을 주는 원동력이었다.

운동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한다. 오늘 하루 빠지고 싶다가도 같이 하는 사람들 만나서 웃고 맥주 한 잔 하는 마지막이 좋아서 나오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피곤해서 열린 집에 가려다가도, 한 사람이 ‘오르렁’을 틀어놓으면 음악소리에 나도 모르게 가방을 내려두고 합류하여 춤을 추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20분이고 30분이고 머무르게 되는 재미지옥 같은 곳에서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어_momchiout@gmail.com

[취재후기] 몸치탈출 연습실에 가다

합정역 모처에 있는 몸치탈출의 연습실을 찾아가는 것은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한 11월 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멤버들과 쑥스러운 인사를 하고 춤 연습을 참관하는 특혜(특별한 혜택)를 누렸다.
 운동량이 많아서 선택했다는 후속연습곡 ‘늑대와 미녀’를 춤췄다 배우느라 시간은 벌써 11시. 격하게 서로 호응해주며 화기애애했던 연습은 우선 일단락되었다.
 나눔터 담당자의 마음도 들쭉들쭉.
 라이브콘서트를 방블케 한 강사님의 열강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는 강사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고,
 ‘그냥 와봤는데 (춤을) 추고 있더라’, ‘모르는 사람끼리 낯것의 몸짓들을 공유하다보니 이제는 친해져서 오게 된다’는 회원들의 설명이 유쾌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좀처럼 연습은 끝나지 않았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었다가도 음악소리에 동작을 맞춰보게 되고, 일주일 내내 근육통과 함께 음악소리가 귓가에 자동재생 된다’고...
 적은 인원이지만 관심사가 통하는 이들끼리,
 마음이 맞는 이들끼리 함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큐캔디의 무지개행동 후원파티에 특별게스트로 공연하시는 모습도 잘 보았습니다.

모과나무의 전설

홍순기 | 본 상담소 이사



상담소 옛집 전경



지난 연말 모과나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활동가 유명

의사동인 박달회에서 활동하시는

홍순기 이사님께서서

박달회 수필집 41권에 수록한

수필 한편을 소개합니다.

내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인연을 맺은 것은
꽤 오래 전의 일이다.

처음부터 상담소에 마음을 열은 것은 아니다. 15년도 넘게 더 전의 일이다. 모 호텔에서 자선모금행사를 갖는 자리에 초대받아 처음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접하게 되었는데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며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당시 꽤 유명했던 여자연극배우가 성폭력에 관한 모노드라마를 하는 순서가 있었다. 내용이 목사인 친부로부터 오랫동안 성폭력에 시달려온 여성의 독백이었다.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로 내내 절규에 가까운 독백이 이어진데다가 내용 자체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억지스럽게 느껴졌다. 의붓아버지도 아닌 친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혈육인 딸을, 그 어린 나이부터 성적 노리개로 오랜 기간 학대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도 사회적으로 목사직을 수행하면서... 너무 억지로 극적 요소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생각했고, 호텔에서 하는 자선모금파티라는 점이 부정적 느낌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이후 초대하신 선배선생님의 권유도 있고 하여 2000년도부터 상담소 이사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관점은 점차 바뀌어 갔다.

아아, 세상에는 내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 극적 요소를 억지로 극대화한 내용일거라고 거부감을 가졌던 모노드라마의 내용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세상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인성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수직관계에서 힘없이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인권유린의 사각지대가 여기저기 묻혀있었다. 세상에 끌어내오지 않으면, 공권의 힘으로 구조하지 못하면, 너무나 처참하게 짓밟혀지는 여성들이 있었다.

성폭력이라는 단어조차 귀에 낯선 시절,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열정을 불태우는 활동가들을 보면서 나는 감동을 받고 감화되어 갔다. 활동가들은 그들의 고학력과 다양한 재능이 보장받을 수 있는 대우를 반납하고, 아니 반항이라도 하듯이 외면하고, 교통비 밖에 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퇴근시간도 무시하고 일하고 있었다.

작은 힘들이 합쳐지니 세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였다. 성폭력방지특별법도 제정되고 사회도 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더 가져주기 시작했다.

상담소는 점점 활동의 영역을 넓여가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낱알이 오르는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서울에서도 땅값이 아주 싼 지역에 어렵사리 낡은 주택을 구입하여 상담소와 피해자 격리생활 공간인 쉼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정겨운 그 집 담장 안에는 오래된 모과나무가 있었다. 가을만 되면 이놈의 가지가지에 어찌나 실하고 풍성하게 열매가 달리는지 상담소에서 가을 이사회를 하고 나오는 길이면 상담소 식구들의 정과 함께 의례히 향이 아주 묵직한 모과 두 세 개가 내 손에 들려 있곤 했다. 모과 하나가 꽤 큼직하여 모과차를 담그면 양이 제법 되었다. 겨울이 오면 따끈한 모과차를 담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무슨 커피 선전이나 나오는 배우 흉내를 내며 깊은 향과 달콤함을 즐기곤 했다.

상담소는 오랜 셋방살이에서 헤어나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워낙 오래된 집을 개조한 것이라 해가 가면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녹는 대로 집의 수명이 다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담장도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허름한 곳을 내담자들이 찾았을 때, 치유가 시작되기도 전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참담함을 보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마음에 늘 짐이 되었던 터였다.

돈 걱정에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어찌어찌 또 예산을 꾸려, 올해에는 재건축을 착수하게 되었다.

소장님 이하 활동가들은 설계도면을 보며 돈 걱정이 반, 새집에서 활동하게 되는 설레는 마음이 반. 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사들이나 후원자들도 비슷한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작은 터에 여러 기능을 욕심내어 넣다보니 마당의 모과나무와 수국 등의 식물들이 함께 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수령이 꽤 오래됨직하여 이 집의 역사와 함께 숨 쉬었을, 그리고 상담소의 일상을 함께하며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위안과 따뜻한 행복을 주었던 그 모과나무가 가슴에 아렸다.

상담소와 함께한 10여년의 세월동안 그 집을 드나들었던 성폭력피해자들의 사연들과 활동가들의 애환이 바람결에 실려 그 나무에 고스란히 품어져 있을 것인데...

그런 늙을 어떻게 좀 살려볼 수 있을까 하여 우리 병원의 화단으로 이주시킬 생각을 하고 이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성폭력상담소의 아이콘 같던 모과나무를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깊은 모과 향을 가까이에서 계속 즐길 수 있다는 욕심에 마음이 들뜨기까지 하였다.

알고 지내던 플로리스트에게 담 안쪽과 담 밖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현 상황을 문의해 보았다. 성격이 꼼꼼한 이 분은 병원을 방문하여 화단의 어울리는 위치와 토심을 확인하고 세 분의 나무전문가에게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주비용까지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은 답과 조언을 주었다.

“아마도 이 나무는 묘목 때부터 이 집의 마당에 심겨져 나이를 먹었을 것이다. 나무를 옮기려면 뿌리를 최대한 살려서 분을 뜬 후에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 나무는 뿌리가 자라면서 필시 곁에 있는 담을 파고들었을 것이므로 그 부분은 끊어내고 분을 떠야 할 것이다. 옮겨올 곳의 토심도 충분하지 않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주 후에 이 나무가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이주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 비용을 들고도 살 수 없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나무를 폐기하는 게 낫겠다.”

결론적으로 모과나무는 그가 어릴 때부터 뿌리내렸던 그 집과 운명을 같이해야 하는 것이었다.

더 좋은 곳이 생기면 서슴없이 그 곳으로 옮겨가고 자신의 이익에 연연해하는 우리네 사람보다, 그들과 위안과 열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고 한번 뿌리내리면 그 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나무의 속성이 자못 숭고하게 느껴진다.

꼭 요란한 사건들만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게 하는 것은 아니다. 조용하고 아주 작은 일상의 일들이 오래 마음에 머물면서 삶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더 많다.

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아낌없이 남에게 베푸는 것, 그리고 때가 오면 운명에 거스르지 않는 것... 모두 깊이 새겨야 할 삶의 교훈이 되는 항목들이 아닌가.

자신이 뿌리내린 터에서 집과 담과 함께 장렬히 전사한 모과나무의 전설이 꽤 오래 가슴에 남아있을 것 같다.

쉬고 또 쉬다보면 우리 마음에도 꽃이 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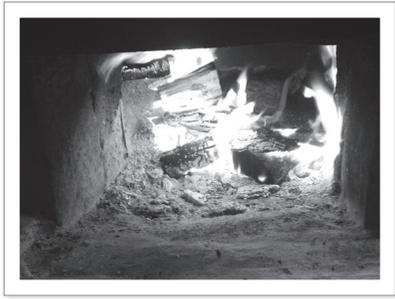
정유석 | 본 상담소 前 활동가

어떤 이는 정선을 ‘해매임을 멈추고 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일까요? 두어해 전, 저 그리고 상담소 활동을 통해 만난 친구 덕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 몇몇은 귀촌지를 찾던 여장을 강원도 정선에 풀어놓았습니다.

해발 500미터가 훌쩍 넘는 스무골 골짜기에는 약초 공부를 하고 서울서 내려오신 분들, 건축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일 년간 직접 집을 지어 이사 온 부부, 여름 별장으로 집을 둔 분들 그리고 300년이 가까워오는 느릅나무와 비탈 밭에 철마다 꽃피우는 더덕과 도라지, 엉겅퀴, 또 온 산을 제집 삼아 다니는 산고양이들, 가끔 성질 나쁜 사람처럼 울어대는 고라니들, 무슨 질문에든 해답을 알려줄 것 같은 눈빛을 한 부엉이, 우체통에 집 틀기를 좋아하는 박새 가족 그리고 엉덩이만 빼꼼 보여준 멧돼지에 도저히 이름을 알 길 없는 새와 곤충들까지 그야말로 셀 수 없이 다양한 개체군?^^ 들이 누가 주인이고 객인지도 모르게 모여 삽니다.

아래는 이 골짜기에 이사와 겪은 소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도, 괴로운 일도 많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겠지요? 서울에서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요... 며칠 만에 기온이 오르고 별이 좋더니 종일 투둑 투둑 푹푹 풀밭에서 눈 녹는 소리 들립니다.

아궁이에 불을 뒀 때는



늦봄에 이사와 처음 맞은 장마철. 방의 눅눅함이 가실 수 있도록 불을 때려 아궁이 앞에 앉았다. 손에는 신문지와 라이터뿐이었지만 구들방이 익숙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두 시간여가 지났을까. 아궁이 옆에는 종이박스, 플라스틱 부채, 나무 부지깥이, 쇠로 된 집게 등 다양한 도구들이 등장했고, 얼굴엔 검댕이 자국에 팔뚝은 부채질로 빠근해졌다. 집주변에는 두 시간째 연기가 가득하고, 신문에서 옮겨 붙은 불로 장작개비들이 조금 붉어지는가 싶더니 매캐한 기운만 뿜어낸다. 털~씩 아궁이 앞에 주저앉으니 낙엽송 나무들이 연기 때문인지 안개 때문인지 모르게 흐릿하다.

몇몇 분들이 자기만의 노하우들을 알려주었다. 아궁이에 불을 뒀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말고 성능 좋은 토치가 필수품이다. 토치를 쓸 때 화력을 높이려면 거꾸로 잡아라, 아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 환기팬을 돌려 강제송풍 방식으로 바람이 불도록 해야 한다. 나무를 우물정(井)자로 놓는 것이 좋다. 나무 아래 돌이나 벽돌을 괴어 공기구멍을 내놓으면 아무렇게나 쌓아올려도 괜찮다. 불쏘시개를 제일 밑에 놓아야 한다. 아니 우리 아궁이에는 그것보다는 장작, 불쏘시개, 장작순으로 놓는 것이 적합하다 등등. 모두들 각자의 방법으로 정말이지 1분 만에 훌륭히 불을 지펴 보이셨다.

한 달 가량이 지나는 동안 의견을 주신 분들의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았고, 드디어 우리 아궁이도 5분도 안되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일 년이 지나 우리 아궁

이에는 공기구멍과 잠금장치가 있는 튼튼한 쇠문이 달리고, 연기에 강한 스테인리스 환기팬 그리고 다이얼을 돌려두면 자동으로 팬이 꺼지는 타이머를 겸비하게 되었다. 그 사이 우리는 토치와 환기팬은 어느 브랜드가 좋은지, 불쏘시개로 좋은 재료들이 어디에 주로 있는지, 금방 타는 나무와 오래 타는 나무 등을 익히게 되었다.

가끔 손님들이 찾아와 아궁이 앞에 앉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있잖아요. 불쏘시개를 이렇게 두시면 좋구요. 토치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단 불이 붙으면 조금 젖은 나무도 괜찮은데요. 나중에 아궁이 안쪽으로 장작을 이렇게 밀어두면 방이 더 따뜻해져요...”

나무 연료를 쓰는 것이 자연에 좋은 선택인가, 전체 난방에 편리한 보일러를 깔아야 하나. 아직도 이런저런 고민이 되지만 ‘탁. 탁. 활활. 썩썩.’ 열심히 타고 있는 아궁이 앞에 앉아있으면 수없이 많은 생각이 일어났다가도 고요히 따뜻하게 가라앉는다.

별(辰)을 노래(曲)하는 농부農夫친구들



정해진 농법보다는 땅과의 소통, 자연에 대한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연농을 택한 친구들. 아랫마을 친구들은 사람과 자연이 동등하다고 믿으며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퇴비도 최소화하며 느려도 땅의 힘을 되살릴 수 있는 자연농

을 시작했다. 이 친구들의 밭에는 풀과 곡식이 함께 자라고, 수확을 하고 난 자리도 여전히 생명들로 가득해 얼핏 보기엔 묵밭이나 게으른 농부들이 신경을 덜 쓴 땅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번은 이런 사정을 몰라주는 동네 어르신이 정말이지 선의로 밭에 무성한 풀(이 친구들한테는 곡식이나 다름없는)을 예초기로 베어주셨고, 덕분에 속상해진 마음에 읍내에 가서 술을 마셨지만 그 마음이 풀리지 않더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연농을 실천하는 것이 살면서 해 온 수많은 선택 중 가장 잘 한 일인 것 같다고도 했다.

얼마 전에는 이 친구들과 그간 버르던 짧은 여행길을 나섰다. 일 년 전에 문을 연 인근 도시의 유기농 가게를 찾아가 그간의 운영 경험도 듣고, 결혼이주민 여성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러 점심을 먹고 그곳 오일장 풍경도 구경할 요량이었다. “아. 삼십분 후 출근하는데요. 물건이 많이 없어서...” 찾아간다고 미리 건 전화에서 주인이 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일 년 만에 다시 찾아간 가게에는 과자와 견제품 몇 종류만 있을 뿐 지역 유기농 농산물과 유제품 등으로 가득했던 냉장고는 장난감이 달린 유아용 쥬스류만 남고 행하니 비어 있었다. 가게 주인은 유기농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고, 유기농이라는 이름을 단 브랜드 매장이 몇 군데 들어섰으며, 유기농 회사의 제품이라고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의 매입을 하지 않으면 거래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 소규모 유기농 가게 운영의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다시 심기일전해야 할지 다른 품목으로 바꾸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땅의 힘을 살리는 자연농을 시작한 친구들은 재배한 농산물을 어떻게 사람들과 나눌지 고민이 깊어진다. 돌아오는 차 안에 얘기가 가득하다.

※ 정유석 '쉬고 또 쉬면 쇠로된 나무에 꽃이 핀다.' - 벽암록에서 본 글귀입니다. 쉬고 또 쉬다보면 우리들 마음에도 꽃이 필까요? 바쁜 일상이지만 가끔은 몸과 마음 쉬고 또 쉬어 상담소 식구들, 우리들 마음에도 꽃 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호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손님은
요가지도사 나유미님과 박아름 회원입니다.

interviewer_ 조화 (본 상담소 부설 열림터 前 활동가)
interviewer_ 란 (본 상담소 사무국장)

나마스떼! 열림터 생활인의 바른 자세를 책임지는 나유미 요가지도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아름 회원



「 나마스떼! 엘리터 생활인의 바른 자세를 책임지는 나유미 요가지도사 」

수요일 오후 9시.

엘리터에선 긴장 섞인 한 숨과 외마디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매주 진행 중인 요가수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좌식으로 공부하고 누워서 핸드폰 하는 걸 즐기는 생활인들에게

바른 자세를 위한 요가는 무서운 운동이었습니다.

엘리터생활인들의 건강한 근육을 위해 2년 동안 요가를 지도해주신

나유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정리_조화 | 본 상담소 부설 엘리터 前 활동가

Q 나유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포레스트 요가학원을 운영 중인 요가지도사입니다. 요가를 한지는 10년 정도 됐네요. 2011년도에 요가로 봉사활동 시간이 필요한 때가 있었는데 요가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복지관에 문의를 해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요가학원에 다니는 분의 아는 사람이 엘리터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해줘서 인연이 시작됐죠.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Q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 다행이에요. 소개 받기 전에도 성폭력피해자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A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관심이 있진 않았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도 저는 쉼터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 엘리터 원장 공명이 “놀라셨죠?”라고 하더라고요. 시설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 같고 협소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보통 다 놀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설에 대한 상상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놀랄 것이 없었죠. 다니다 보니까 TV를 통해 본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다르더라고요. 다니면서 느꼈어요.

Q 엘리터는 요가선생님 덕분에 매주 운동의 기회가 생겼는데요, 엘리터와의 만남이 선생님께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A 생활인들을 만나면서 조금 더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만나는 생활인 대부분이 청소년인데 저는 청소년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요가지도자로서도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엘리터와의 만남이 경험을 넓혀주었죠. 또, 요가학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의지를 갖고 오잖아요. 엘리터 생활인들은 요가학원에서 지도하는 수강생보다 연령대도 낮고, 의지가 없는 생활인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어떤 때는 굉장히 산만하기도 하고 하기 싫어하는 티를 내기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접근해서 지도할지 요령도 생겼어요.

Q 기억에 남는 생활인이 있나요?

A 제일 처음에 만난 생활인들이요. 저는 첫날 열림터에 들어서면서 ‘이 생활인들을 계속 보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쉽다 보니 들고남이 자주 있는데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요가에 특히 관심이 있거나 열심히 했던 생활인, 꾸준히 하면서 실력이 늘었던 생활인들도 기억에 남아요.

Q 열림터 생활인 프로그램은 강사와 생활인과의 관계가 프로그램 참여도나 집중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나유미 선생님은 꾸준히 생활인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A 딱히 없어요. 생활인을 볼 때 편견, 미리 판단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노력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특별한 것 없이 꾸준히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Q 자원활동으로 요가를 2년 이상 지도하셨는데 힘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A 2012년부터 열림터 요가지도를 했는데 그때 수업 기대치를 높게 잡았어요. ‘내가 이 수업을 통해 생활인들 몸을 좋게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도 주고 싶다.’ 그런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 마음대로 될 리가 없죠. 또래들이 모여서 하니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 몇 개월은 힘들었어요. ‘나는 이 만큼 주고 싶은데...’. 나중에 심지어 ‘이게 한 시간을 뺏는 건지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활인은 7~8명이고 그들의 시간을 모두 합치면 7~8시간인데, 이 7~8시간이 제대로 쓰이는지 고민했어요.

제가 2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생활인들의 몸의 변화예요. 생활인들의 몸이 변하고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어느 순간 내 욕심을 인정하고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공간이 좁아서 다양한 동작을 하기가 어렵고, 주 1회는 운동효과를 누

적하기에 적은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하니 어느 순간 좋아지게 보이더라고요. 1년 정도 요가 프로그램을 한 생활인이 있는데 처음에 굉장히 방향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방향감각도 생기고 실력도 늘어서 저도 놀랐어요. 그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생활인들을 보게 되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요가수업 끝나고 질문하는 시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거든요. 생활인들이 더 이해되어서 그 시간도 참 좋아요.

Q 요가가 성폭력 치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요가는 정신적인 면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운동처럼 체력 향상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체력·정서를 다루고 이완시키는 동작이 많거든요. 몸이 많이 이완되면 정서, 마음이 이완이 돼요. 10년, 20년 잡혀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완이 되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릴 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열림터 생활인들도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벗어나 열림터로 오는 거잖아요. 열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만 긴장된 상태에서는 좋은 것도 못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마음이 열려있는 순간에 무언가를 주면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했던 고민이 있었어요. 운동이라는 게 몸이 먼저인지 마음이 먼저인지 한참 생각했는데, 결론은 ‘몸이 먼저구나’였어요. 건강하고 체력이 좋아야 의지도 가져올 수 있고 실행할 수도 있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긴 어렵잖아요. 확실히 몸이 건강해지면 올바른 생각을 하기가 조금 더 쉬우니까요. 올바른 생각이란 자기자신을 아끼고 더 챙기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치유의 길엔 요가나 다른 몸의 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Q 그동안 열림터의 유일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상담소와 열림터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거침없이 해주세요!

A 유일한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하니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왔다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프로그램도 더 열심히 짜고 준비해야겠어요. 열림터에서 요가지도를 하는 것이 꼭 생활인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생활인들과 함께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구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인터뷰를 통해 나유미 요가선생님과 2년간의 소회를 시원하게 나누었습니다.
열림터 생활인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유미 요가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아름 회원

전 상담소 상근활동가이기도 한 박아름 회원을 만났습니다.

박아름 회원은 현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
교육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여성인권의 관심이 동물권으로 이동하게 된 과정에 서있는
박아름 회원을 카라 ‘더불어 숨 센터’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 _ 란 | 본 상담소 사무국장

Q 박아름 회원님 안녕하세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곳은 여성인권과는 다소 다른 영역인데, 어떻게 활동하게 되었는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A 박아름이고요. 전 상담소 활동가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성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 동물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동물권이 소수자, 여성인권 문제처럼 폭력구조 속에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정보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전 길고양이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제 명함 뒤 사진이 ‘하악이’인데, ‘하악이’를 2년 정도 키우게 되면서 길에 있는 고양이들이 보였어요. 분명히 고양이는 그 전에도 그 길을 지나다녔을 텐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존재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Q 상담소에도 동물권에 관심을 가진 활동가들이 있어요. 동물권에 관심이 있는 것과 동물 보호단체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는 것은 다를 텐데, 처음 시작할 때 어떠셨나요?

A 저는 구체적인 활동이나 공부로 연결되기 전에 카라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동물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니, 카라에서 일하던 분이 알던 지인이 카라에서 활동가를 찾는다는데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동물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기본서라고 하는 「동물 해방」부터 읽고 공부했어요.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사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동물권 운동을 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제가 일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국외에서는 동물복지라는 분야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영역, 학문적, 철학적인 분야로 자리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한국은 동물복지를 공부한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Q 반려동물을 생각하면 동물과 인간은 참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또 쉽게 폭력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인식변화가 필요할 텐데,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이뤄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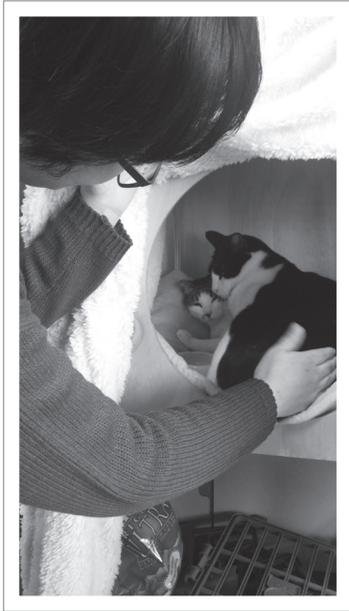
A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다양한 교육 요청이 와요. 단순히 재미를 주는 것을 넘어서 내용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동물권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라는 걸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농장동물,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농장동물의 끔찍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려동물 이야기를 하면 “개, 고양이

얘기할 줄 알았어” 라든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어린이는 “내 문제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물원 동물을 이슈로 해요. 야생에서 살던 동물이 어떻게 동물원에 오게 되고, 어떤 고통을 겪는지, 그들도 복지가 있고, 지각력이 있는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체험교육이 아이의 인성에 좋다고 하는데 무조건 만질 수 있고, 무조건 탈 수 있다는 식으로 동물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은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동물을 만지고 타봐야 인성이 개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파충류의 피부를 만지는 것보다 그 동물에 대해 존중하고 거리를 지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밥을 던지면 받아먹는 존재로만 동물을 인식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Q 최근 카라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활동을 한 가지 소개해주신다면요?

A 한국의 보호소는 시립보호소와 사설보호소 두 종류인데, 시립보호소는 약 10일 이후에는 안락사를 해요. 사설보호소는 시설이 좋지 않아서 쓰레기장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한국은 유기동물이 구조되어 시립보호소로 가면 열흘 후에 안락사 되고, 사설보호소로 가더라도 다른 동물에게 물려서, 피부병에 걸려서, 또는 계속 출산을 하다가 죽거나,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어요. 유기동물의 상태에서 복지를 누리고 입양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활동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 들어오는 경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동물복지 개념을 이해하는 보호소가 점차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고, 전국에 있는 많은 사설보호소, 특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의 보호소가 줄고 그곳의 유기동물이 분산되어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보호소를 운영하시는 한 분을 잘 설득해서 유기동물을 임시보호 맡기거나 입양 보내고 보호소를 닫았어요. 독일은 안락사가 0%라고 해요. 생산업과 판매를 금지하거든요. 사람들 개별의 도덕성에 기대서 안락사를



0%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 역시 절실하죠.

Q 카라를 생각하면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 중인데, 동물권 운동과 여성인권 운동은 운동방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 요즘 동물의 초상권 등을 이야기하는 그룹도 생기긴 했지만 사실 동물권 운동은 피해 그룹을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은 운동이에요, 보여줄 수 있죠. 여성폭력 운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노출 방식은 현실을 알리고 시민의 인식변화가 생길 정도로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기 쉬

운 만큼, 더 무거운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하는 것 같아요. 동물은 말을 하지 않으니가 동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으로 생각을 덧입혀서 할 수 있거든요.

또 일반 대중에게 후원요청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비교적 많은 후원이 이뤄지는데, 사실은 가정에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애정 때문에 그 애정이 이 운동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운동방식이 여성인권 운동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되기도 해요.

Q 상담소 활동과 동물권 활동의 유사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A 유사한 것은 우리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가려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점 같아요.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점은 사람들의 관심에 비춰왔을 때 동물권을 보장하는 법제도가 부족하다고 할까요. 사람들의 의식과 법의 괴

리가 더 큰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씩 느리게라도 변하지 않을까 기대해요. 독일의 동물보호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많이 걸렸다. 80년대에 시작해서 이제야 빛을 보는 거다. 정말 변화가 안 보이겠지만 지금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 많다. 언젠가 돌아보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Q 마지막으로 회원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A 결국은 타자화가 무섭다고 하지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나와 분리된 존재로 생각할 때 잔인해지거나 엄청나게 무관심해질 수 있잖아요. 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도 그렇고요. 동물권 문제도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타자화하고 누가 더 우월한지를 따져서 결론을 내고, 이용하고.

공장식 출산으로 동물들이 고통 받는 문제가 심하고, 그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한데 공장식 출산이 등장해서 확산된 게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동물권 문제가 대단히 무거운 주제거나, 인간의 본능 또는 자연스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하나하나 바뀌나갈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기견들이 안락사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16세기 영국에는 유랑법이 있어서 유랑하는 사람들, 유기인을 사형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동물원처럼 사람을 전시했던 역사도 있고요. 약자라고 여기는 타자에게 폭력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성폭력에 관심 갖는 분들이 동물권 문제도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담소 벽돌기금 (웃음). 카라도 새롭게 건물을 만들면서 활동가의 업무효율과 복지가 많이 나아졌고, 그런 부분은 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상담소의 새로운 보급자리를 만드는 것을 축하하며, 저도 참여할 테니 다른 회원님들도 많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네요.

박아름 회원은 유기동물이 구조되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조한 이 한 생명이 주는 천국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다가 아닌데, 그 지점에서 멈춰서 모든 것이 이뤄진 것처럼 여기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박아름 회원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은 만남이었습니다. 카라 건물 전체 대청소 날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어 '세상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평화로운 숨을 쉬는' 방법을 알려준 박아름 회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박아름 회원의 추천 책

피터 싱어, <동물해방>

웨인 파셀, <인간과 동물, 유대와 배신의 역사>

마크 롤랜즈, <철학자와 늑대>

{ 오래 전에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저도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는 30세의 여성입니다. 친부로부터 11세부터 17세까지 지속적인 성추행과 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변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지만 어머니와 친인척들은 저를 비난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면했습니다. 저는 지금 불면과 악몽에 시달리며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소해야 제 분노가 조금이라도 풀리고 심적으로도 회복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뉴스를 보니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기간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오래전의 성폭력 피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From 궁금이>

A 안녕하세요, 궁금이님. 어린시절 겪은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에 대해 현재 고소를 고려하고 있으시네요. 2013년 6월 19일 법 개정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다는 소식 등을 접하면서 궁금이님도 고소 가능성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현재 고소가 가능한지, 친고죄, 고소기간, 공소시효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다는데, 친고죄가 무엇인가요?

친고죄란 고소권자(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알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하지 않았

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종용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기도 했는데요. 고소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것 역시 성폭력의 사법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피해자의 명예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라는 명목으로 성폭력범죄에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는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실제 법이 적용되는 현장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에 성폭력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오래전의 성폭력 피해도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나요?**

2013년 6월 19일 이후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성폭력범죄를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게 되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다만 2013년 6월 19일 이전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는 여전히 고소기간이 1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2013년 6월 19일 이전 일어난 피해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과 관련한 법률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기에 당시 법률에 의하면 친고죄가 아닐 수도 있고, 피해시기에 따라 공소시효도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궁금이님이 마지막 강간 피해를 입은 것이 2001년이라면 당시의 성폭력특별법 상 친족강간죄가 적용되고, 이 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기간은 없으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2008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에 2015년인 현 시점에서는 형사 고소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벌이 어렵다면
어떤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강간치상죄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상해를 인정하는 판례가 일반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피해 이후부터 치료를 받았거나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민사적 해결방법을 통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성폭력 사건이 법적 해결방법을 찾기 어렵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역시 많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결코 성폭력행위는 없었던 일이 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궁금이님이 법적 해결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과 더불어 스스로 고소를 고려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피해를 호소하고 고통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온 노력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피해와 해결과정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풀어내는 치유작업을 알아보고 시작해보시기를 권유하고 싶어요.

궁금이님, 오랜 시일이 지나 고소를 고려하게 된 점에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궁금이님과 같이 친족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하였을 때, 주위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인식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 문제해결 시도가 좌절되고 분노와 억울함이 오랜 기간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변의 조력을 받기 힘들게 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어린 시절 성폭력피해를 입은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고소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어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개정되기도 하였지요.

항상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아 온 궁금이님의 오랜 여정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그 여정에 상담소도 함께하겠습니다.

〈FROM. 차차〉

2014 하반기 열림터 다이어리

7월 반갑다 열림터! 홈커밍데이

퇴소 후 그리웠던 열림터... 홈커밍데이를 통해 모두 모였습니다!



< 퇴소자 한마디 >
"안전하고 속 시원하게 소리 지르고 울 수 있는 방. 오랜만이에요."
"오늘 시간이 너무 뜻 깊고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는 열림터가 되길 바랍니다."

8월 꿈으로 들여다 본 내 마음, 꿈 분석 캠프

꿈을 통해서 나의 의식을 분석해보고, 꿈이 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 생활인 한마디 >
"내가 가지고 있는 꿈, 기억하고 있는 꿈이 내가 스스로를 가두어 놓았을 때 좌절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나에게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꿈의 새롭고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를 안전하고 수월하게 해석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신기했습니다."

9월 위키드, 뮤지컬 관람

멋진 의상과 화려한 무대! 열림터 생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뮤지컬 관람입니다.

< 생활인 한마디 >
"내 인생 최고의 뮤지컬이었습니다! 내 개그 코드와 잘 맞았고 캐릭터도 너무 귀여웠습니다."
"주인공 2명이 친해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절대 놀림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구와의 우정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스토리는 얼어붙고 다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꿈속의 동화나라 같은 이야기에 빠져서 즐거웠고 좋은 노래도 발견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10월 열림터 스무해를 열다 - 열림터 개소 20주년 기념식

열림터를 지지해주고 함께 성장시켜준 많은 분들과 열림터 개소 20주년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 생활인 한마디 >
"20주년이 쉽게 오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역사의 순간에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만든 장식으로 기념식을 꾸며서 좋았습니다."
"퇴소자들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저도 나중에 열림터 행사할 때 원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천혜의 자연 제주도여행, 겨울캠핑

도시 속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던 열림터는 제주도로 훌쩍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연과 함께한 모든 순간은 추억으로 남겨왔습니다.



< 생활인 한마디 >
"처음 탄 비행기도 좋았고 처음으로 간 제주도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바다는 처음 봐서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숲길과 오름을 걸었을 때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제주도를 갔다는 것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말 타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자연의 냄새와 차 안에서 보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12월 타인과 나, 집단 미술치료

미술 작품으로 '나'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의 작품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서로의 관계가 성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생활인 한마디 >
"단순한 그림그리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타인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할 수 있었고, 내가 가해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힘들어서 조마조마 하기도 했지만 이야기할수록 용기가 생겼습니다."

정리_ 조화 | 본 상담소 부설 열림터 前 활동가

이주여성과의 만남 나의 삶

-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시민강좌 인권 평등, 함께 살기

라라 | 본 상담소 회원

인권과 평등에 대한 나름의 치열한 고민을 가지고 발을 디딘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시민강좌 인권, 평등, 함께 살기'의 마지막 시간은 김현미님의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 이주자의 관점으로 다시 읽는 한국사회'로 진행됐다. 이주여성이라는 다소 생소하고 어려웠던 주제를 재미있게 생생하게 잘 풀어내 강의 내내,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닌 드라마를 한 편 보는 기분이었다. 이주문제를 젠더 관점으로 접근해, 신자유주의시대 여성들이 왜 이주하는지, 여성들이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강의를 통해 현재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며 참으로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와 중개업의 공모로 결혼중개업이라는 초국적 산업 시장이 창출되고 23만 명 이상의 여성이 한국으로 이주해왔다. 그에 따른 정책지원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지만, 다문화적 공존보다는 성과 이점을 한국식으로 바꾸는 등 이주여성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 답답할 따름이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말이 떠오른다. '어머니는 베트남사람이지만 김치가 없으면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김치를 좋아하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세종대왕, 독도는 우리 땅...'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공유되기보다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거기에 맞추라'는 식이다.

왜 젠더 관점으로 이주문제를 봐야 할까. '이주자'라고 하면 까만 피부의 남성 노동자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곤 했었다. 하지만 강의에 의하면 현실은 여성의 단독 이주가 급증하고 있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집안이 남성을 지원하지만, 여성에게는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원이 빈약한 여성들이 거래비용을 내지 않고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은 섹스워커, 또는 결혼 등 사적인 방식의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듣고 남동생에게는 빚을 내어 학업을 지원해줬으면서 나에게는 내가 번 돈을 달라고 하시던, 없으면 학자금이라도 빌려서 달라고 학자금은 이자가 싸니까 괜찮다고 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물론 집을 나와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상처를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갖게 됐긴 하지만, 나 역시 남동생과 다른 대우에 아파하곤 했었다.

왜 여성들은 이주하려고 하는 걸까. 어떻게 선이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남성이 오면 대기하고 있던 여성들이 비슷한 옷차림에 번호표를 달고 짝 서있다고 한다. 긴 머리에 흰 티, 청바지를 입은 비슷비슷한 모습의 몇 십 명의 여성이 쪽 나란히 서있는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있는 듯 선하다. 그리고 굉장히 괴로운 이미지로 다가왔다. 병원에서 처녀막검사를 할 때 그 여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껌껌하고 조용하던 시골에 벽돌집이 들어오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비록 지금 당장은 모욕적일지 몰라도 이 결혼이 성사되면 집이 바뀌고 오토바이가 생길 거라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빈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렇게 남성들에게 선택되어 한국에 오는 이주여성 대부분이 내 또래 20대 초반이라는 것... 단순히 제3자의 입장에서 안전하게 거리두지 못하고 아파하며 들었던 이유는 그 생존이 전부가 된 불안한 시기 안에 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집을 떠난 적이 있다. 특별히 기술도 없는 10대 여성이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적었다. 기술 없이 할 수 있다는 막노동조차

도 여자, 그것도 어린 여자라는 이유로 할 수 없었다. 결국 돌봄노동, 감정노동이 요구되는 직무를 해야만 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제의들을 받은 것과, 거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애교를 부리는 등 여성성을 이용해야만 했던 아이러니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권력이나 자원이 되었다가 억압의 기제가 되었다가 하며, 원하지 않을 때조차 시도 때도 없이 따라붙던 여성 정체성의 경험에서 ‘젠더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말을 무겁게 실감하게 됐다.

나는 많은 여성주의 의제 중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여성폭력에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제결혼중개업법이 소비자보호법에 기초했다는 설명을 듣고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포르노가 돌봄산업으로 정식화되는 마당에 여성을 물품대상의 위치로 놓는 것 정도에 이렇게나 아픈 건 내가 너무 순진해서 그런 건지. ‘암내난다’ 느니 ‘피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칠다’는 이런 이유로 6개월 이내 ‘여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절망을 느끼기도 했다.

김현미 님은 강의를 마치며 ‘천주민과 이주여성이 어떻게 만나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주셨다. 마치 성폭력생존자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질문과 비슷한 것 같다. 어떤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마주하기란 참 쉽지 않다. 잘 어울리며 지나다가도 상대방이 고통을 드러내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절부절 못하곤 했었다. 그저 마냥 잘될 거라고 위로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았고 선불리 이해한다고 말거는 것은 내가 과연 그 사람의 고통을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싶어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태도는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됐다. 김현미 님은 인터뷰 중에 베트남 여성에게 먹고 싶은 것을 물었는데 그 대답이 와인이었다고 한다. 베트남은 와인산업이 발달해서 오히려 와인을 즐겨먹는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력한 피해자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을 가진, 멋지고 유쾌한 사람들인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낙인찍고 어쭙찮은 충고를 하는 시혜가 아니라 ‘가만히 듣기’가 아닌가 싶다. 자신의 견고한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 평가나 전제를 하지 않고 타자의 삶의 조건과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 관습적인 방식으로 쉽게 듣지 않고 복잡하게 사유하는 청취능력을 기르고 싶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은 어떤 느낌일까 상상력이 필요하다.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을 사람들이 떠오른다. 문자라도 한 번 보내볼까 싶다. 듣고 싶다.

※ 라라_어린왕자에 여우과

라라님은 2014년 하반기에 부설 울림 인턴으로 활동했습니다.
인턴활동이 끝난 뒤에도 상담소의 공개강좌를 비롯한 많은 자리에 함께해주고 있는,
반가운 얼굴이기도 합니다.

성폭력이 동네에서도

편안하게 이야기 될 수 있길

- 카페 765 배진희·김종상님

유영 |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前 활동가

상담소가 위치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은 사람들이 흔히 “홍대 앞”이라고 부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동네 구석구석에는 작은 카페와 식당이 밀집해 있지요. 이 공간들에서 점심시간에 맛보는 한 잔의 커피와 간식은 상담소 활동가들의 시름을 달래주고, 상담소 신축을 위해 좁은 임시거처로 사무실을 옮긴 뒤에는 유용하고 정겹게 회의를 하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카페765”는 특히 상담소 활동가들이 사랑하는 동네 가게입니다. 상담소 활동가 유영이 카페를 운영하는 배진희, 김종상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영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배진희(이하 진희) 저는 배진희이구요, 그 전에는 이것저것 다른 일들도 했었어요. 영화미술팀에서 일을 했던 게 가장 최근의 전 직장이고, 지금은 오빠(김종상)와 2년째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상(이하 종상) 저는 김종상이구요, 현재 같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걸 오픈하기 전에는 자전거수입사에서 일을 했었고, 그래서 카페에 자전거 관련된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웃음).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만 인터

넷쇼핑몰로 자전거용품을 잠깐 팔았었어요.

진희 다들 제가 카페를 꾸미는 줄 아는데 성격이 꼼꼼하고 아기자기한 오빠(김종상)의 공이 더 커요. 저는 큼직큼직한 거만 ‘이렇게 하자!’고 하고, 채워 넣는 건 다 오빠가 하고 있어요.

유영 상담소 근방에서 회의장소로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주 오게 되고, 행사할 때 다과 같은 것도 자주 부탁드리게 된 것 같아요. 동네 분들하고 재밌는 일을 벌여보고 싶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한 가게와 돈독해진 경험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진희 그런 게 잘 풀려서 프리마켓처럼 동네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처럼 동네 분들도,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상담소가 뭐하는 곳인지 대강은 아실 것 같고, 그런 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영 맞아요. 상담소 공간이 그냥 주택처럼 되어 있어서 내담자분들이 오실 때 편안한 장점이 있었지만, 외부에 저희 존재를 알려야 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기도 했어요. 이제 건물이 신축되니 동네와의 접점도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카페765”와의 관계는 상담소에도 의미가 커요. 이전 상담소 활동에 대해 잘 아시고, 행사가 있으면 포스터를 붙여주기도 하시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함께 해주시는 건지 궁금해요.

진희 처음에도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은 알았고 저희 카페에 손님이 많이 오시는 게 아니라서 한 분 한 분 다 감사했어요. 또 열림터에서 책(“우리들의 삶은 동사다”)을 선물해주셔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더 알게 됐구요. 포스터는, 성폭력이란 단어가 유쾌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성폭력에 대한 활동들은 필요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길가나 벽에 붙이면 더 우중충한 느낌일 거 같았어요. 밝은 가게에 잘 보이고 예쁘게 붙여두면 전체적인 느낌이 훨씬 편해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또 상담소 활동가들의 느낌이 나쁘게 다가오지 않아서 거부감을 갖지 않았어요.

유영 의도하신 효과를 낸 것 같아요. 어렵다고 피하지 않고 성폭력에 대해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혹시 열림터에서 선물한 책은 어떠셨어요?

진희 제대로 말하려면 한 번 읽고 말할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다 읽은 후의 느낌은, 상담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공간이란 걸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친숙성폭력이 많이 있구나 느꼈어요. 친숙성폭력 피해가 있으면 이런 쉼터가 필요하겠네, 싶었구요. 그런데 맘에 아프게 남았던 게, 가족의 도움을 받기 힘든 사람들이 나중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혼자 자립을 해서 산다는 게 참 힘들 텐데... 쉼터 이후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너무 안쓰르게 바라볼 필요도 없고 그것도 실례지만,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났어요.

유영 수익이 크지 않고 아직 시작단계라고도 하시는데, 재료를 아낌없이 쓰세요. 행사를 할 때 다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놀랐거든요. 상담소의 요청이 힘들진 않으셨는지요.

진희 우선 음식을 넉넉하게 하는 편이고, 고맙다고 해주시니 기분이 좋아요. 실제로 누가 먹고 맛있다고 하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분들은 남자 분들에 비해 같은 걸 드려도 더 좋아하시고, 뭐가 안 좋으면 더 예리하고 솔직하게 반응하셔서 또 제 입장에선 재밌어요. 행사 다과는 평소에 판매 못하는 음식들을 만들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다들 좋게 말씀해주시니 기분이 좋아서 맞춰드리는 것도 있어요.

유영 상담소가, 한번 인연을 맺으면 다 상담소 사람이라고 해버리거든요. “카페 765”가 각별해서 바쁘신데도 인터뷰 요청을 드렸어요. 혹시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진희 포스터 이야기에 생각이 났는데, 쉼터 생활인이나 내담자 분들이 직접적으로 밖에 나서서 뭔가 하기 어려우니, 활동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외부활동을 해서 알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동네에서라도 성폭력에 대한 이

야기가 좀 편해지면 서로서로 더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들도 상담소 활동가 분들이니까.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를 읽으면서 저도 좀 더 알게 되었는데, 이 책을 본 것과 안 본 것이 차이가 많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전철에서 책 읽을 때 책 표지가 보이도록, 누가 좀 봤으면 해서 이렇게 들고 보기도 했어요 (웃음). 좀 더 알려지면 좋겠어요. 이런 회원소식지도, 회원들만 볼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더 비치했으면 좋겠어요.

유영 말씀 감사드립니다 (웃음).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진희, 종상 저희도 참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서로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이 확실해서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는, “카페일이 생각보다 육체노동이라 2년간 극장에 딱 두 번 가보았다”는 두 분은 4월부터 카페를 쉼 계획이라고 합니다. 쉬는 동안에도 상담소와의 인연을 잊지 말아주시길, 그리고 앞으로도 상담소와 “카페765”의 동네친구 사이가 꼭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상담소가 더 많은 동네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격려가 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6/30~7/11 이화여자대학교 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 참여
 7/2~7/12 연구소 올림 미국 출장
 7/12 밸리댄스 소모임
 7/15 상담소 일부기능 이전
 7/17 한국여성단체연합 '희망의 공간' 확장 기념식
 7/20 등산소모임 (남산 등반)
 7/25 상담소 건물신축을 위한 아듀파티
 7/26 열림터 20주년 홀커밍데이



7/28~8/14 28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
 7/28 세월호특별법 제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각계 원탁회의
 8/11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농성 참여
 8/14 '무타 카즈에 간담회: 성적 위계 구조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 사례 한·일 비교와 해결방안 모색' 참석
 8/21~23 상근활동가MT
 8/23 언니네트워크 10주년기념공연 'Special thanks to' 참석



9/12 상담소 건물신축 설계도 내부 프리젠테이션
 9/16 호주 시드니공과대학 브로너 교수 특강 '호주 NGO 교육 현황'
 9/17 post-2015 의제 종합 워크숍을 위한 사전 포럼
 9/18 post-2015 1차 의제 종합 워크숍 참석
 9/18 부설 올림 '괴물이 된 사람들' 북토크
 9/20 한국여성민우회 일일호프 참석
 9/24 '군대 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9/25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피해자 불이익조치를 통해 본 대안 모색 토론회 '직장내 성희롱 이후, 일파만파'
 9/26 여성의 자기방어훈련 '난다 뭐다 다른 몸' 후기 발표회
 9/27 장애여성공감 일일호프 참석
 9/30 윤일병과 또 다른 모든 윤일병을 위한 추모제 참석
 10/06~10/29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시민강좌 '안전, 평등, 함께살기'] 개최
 10/08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피해를 구성하는 성적 수치심,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10/10 '2014 국제 심포지엄: 인권, 폭력 그리고 교육' 참석
 10/10 충북대학교 '2014 안전과 소통을 위한, 대학생과 함께하는 성평등 토론회' 발제



10/13 한국NPO공동회의 '2014 소통과 나눔 파트너십 페어' 발표
 10/15 여성긴급전화 서울1366 유관단체 간담회 참석
 10/15 고 오대위 사망 1주기 및 17사단 여군 성폭력사건 규탄 기자회견
 10/16 부설 열림터 20주년 기념식
 10/22 '병역판정에서의 트랜스젠더 신체훼손 강요한 병무청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10/22~27 제11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10/24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회 참석



10/28 전주성폭력상담소 '괴물이 된 사람들' 북토크 참석
 11/01~11/02 정기 이사회 및 이사진 워크숍
 11/06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수용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
 11/11 한국여성단체연합 베이징+20, Post-2015 심포지엄
 11/15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예비의료인 성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최
 11/20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공청회 참석
 11/26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 심포지엄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

12/09 한국여성연회, 남인순의원실 주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
 12/10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식 참석
 12/11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인권센터 학술포럼 '양성평등교육과 여성학의 스토리텔링' 참석
 12/19 연계기행사 대표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 대법원 판결 규탄 및 제대로 된 판결 촉구 기자회견
 12/19 한국성폭력상담소 2015년 계획회의 1차
 12/23 상담소 건물신축 시공사 계약
 12/29 한국성폭력상담소 2015년 계획회의 2차
 12/30 이주여성추모제 참석

1/12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워크숍 "여성과 폭력" 주제발표
 1/13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 총회
 1/20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기 총회
 1/29 한국성폭력상담소 제24차 정기 총회 및 임원 이취임식
 2/04 제1164차 정기 수요시위 주관
 2/05 여성가족부, 국방부 '군대 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강화 방안 회의' 자문
 2/10 서울여성가족재단 '풀뿌리 지역여성 커뮤니티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자문회의'

2/13 육군본부 '성 관련 전문가 토의/아전 의견수렴 회의', 국방부 '헬프콜센터 현장방문', 여성정책담당관실 '성 관련 사고예방 대책회의' 참석
 2/1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시민강좌 착수자문회의
 2/16 서울시 여성정책실 '2015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자문회의'
 2/17 국회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간담회
 3/5 '이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강제와 혼인취소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 토론
 3/8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1회 한국여성대회
 3/17 직장내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아웃 선포식
 3/18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구급단 다섯 명의 중국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 석방과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연대 기자회견
 3/2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정책 심포지엄 주제발표
 3/28 등산소모임 (북한산 등반)



{ 후원자 편지 }

안녕하셨어요? 명륜입니다.

오늘 상담소 새집짓기 벽돌기금을 보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깨달은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라 자위하면서 보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양평원에서 주최한 <올해의 강의 경연대회>라는 행사에서 성폭력분야 우승을 했습니다. 처음 열리는 대회라 출전자 많지 않았던 터에 어부지리의 행운을 갖게 되었지요. 연말쯤,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이라고 해서 백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수령했어요.

남아주신 부모님 덕이 가장 크니, 부모님들께 용돈 조금씩 드리고 프리랜서 강사로 전국 떠도는 아내에게 싫은 내색 한번 없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신랑이랑 조출한 파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만 원을 남겨두었어요. 꼭 하고 싶은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어느 것에 쓰는 것이 의미 있을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마법처럼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첫번째 사건은 독서입니다. 요즘 출간을 준비 중이라 관련도서를 열심히 읽고 있는데 어제오늘 읽은 책이 임승수씨의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였거든요.

예전에 이해인수녀님의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렇듯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혼자 내린 결론은 '수녀님의 삶을, 수녀님의 말과 글을 통해 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제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를 어제오늘의 독서에서 발견하고는 '내가 경연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상담소에서의 활동 덕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두 번째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지난주 양평원에서 성폭력 재범방지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후속 메일이 온 거예요.

"강의가 엄청 뛰어난 건 아니었다. 그러나 최소한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더라. 실천과 행동을 동반했던 인생을 살아온 듯하고 그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교육에 녹여내는 것이 인상 깊었다. 강사 소개에서 자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스토리텔링이 감동적이어서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랬던 거더라고요. 이십여 년전 상담소와 인연을 맺게 해준, 같은 천안지역에서 학교를 다녔던 그 두 사람 덕이더라고요. 상담소에 몸담고 활동했던 그 시간이 쌓이고 지나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그 우승상금은 당연히 벽돌기금이 되어야 한다는 늦은 자각이 왔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거처하며 쉬고 치유하고 회복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쉽터! 아직도 현장을 지키며 최일선에서 반성폭력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활동가들의 터전! 그곳으로 상금이 가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백만 원입니다. 물론 전복 장수라는 산골에 사는 제게 무척 큰돈입니다. (심지어 인터넷뱅킹에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리기까지 했다는~^^)

그런데, 이 돈이 저를 위해 쓰는 것보다 벽돌기금으로 가면 더 키질 것 같습니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커져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목적에 한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줄 것 같습니다.

건강과 평안하시길요.

2015년 3월 4일
명륜

♥
여러분께서 상담소와 열림터, 울림에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과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 상담소, 울림 }

- 권김현영 지문위원님이 후원해주신 딸기
- 김태원님이 후원해주신 핸드크림
- 당고님이 후원해주신 브라우니
- 라리님의 다량취단떡볶이 반식빵 그리고 꿀버터과자
- 미소 상담활동가님이 후원해주신 호두과자
- 사과님이 후원해주신 청포도
- 용기님이 보내주신 고구마
- 이명숙 이사님이 후원해주신 오메기떡
- 이윤상님이 후원해주신 쌀 마들렌
- 이주혜님이 후원해주신 레드향
- 조인성 지문위원님이 추석과 설 선물로 보내주신 와인
- 카페765에서 후원해주신 김장김치
- 법무법인 원에서 후원해주신 김장김치
- 비온뒤무지개재단이 후원해주신 화장품
-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에서 후원해주신 한라봉과 초콜릿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부설 평화의샘에서 보내주신 굴
- 카피플러스에서 설 선물로 후원해주신 꿀
- 상담소 서버를 지원해주고 계시는 (주)스마일서브
- 상담소의 빈 구석을 채워주시는 자원활동가분들
- 상담소의 건물신축기금 마련을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

{ 열림터 }

- 강수희님이 보내주신 의류
- 곽현지님이 후원해주신 도너츠
- 김교화님이 보내주신 의류
- 김나래님이 보내주신 의류
- 김도희님이 보내주신 의류와 과일
- 김미순님이 후원해주신 쌀
- 나유미 요가선생님이 후원해주신 요가복
- 사라님이 후원해주신 도너츠
- 은수님이 후원해주신 빵
- 이경희님이 보내주신 의류
- 이유진님이 보내주신 책, 초콜릿
- 정현주님이 후원해주신 케이크
- 최승연님이 보내주신 김
- 토리님이 후원해주신 수면바지와 속옷
- 하나님이 후원해주신 케이크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후원해주신 음반, 도서, 화장품
- 청소년건강센터 나는봄이 후원해주신 의료용품
- 법무법인 원에서 후원해주신 김장김치
- 비온뒤무지개재단이 후원해주신 화장품
- 셋터에서 보내주신 영양제와 화장품
- 2014 세종도서 문학나눔에서 후원해주신 도서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부설 평화의샘에서 보내주신 굴
- 서울화력발전소에서 후원해주신 의류구입비
- 활동진건축사사무소에서 후원해주신 케이크
- 식재료꾸러미를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는 언니네떡방



{느긋한 등산모임}

지난 10월에는 관악산에 올라서 도시락을 먹고
신림에서 점저(점심 겸 저녁)를 함께 했지요.
3월 마지막 주 북한산을 시작으로
2015년 등산모임도 다시 기지개를 켭니다.

**월 1회 토요일 아침,
서울 인근의 상으로 가벼운 산행을 떠나거나
가볍게 둘레길을 걸읍시다.
짧지만 즐거운 뒤통이까지! 함께해요!**



{차차차 기타교실}

2015년 상반기의 희소식!
기타는 있지만 코드 하나 짚기 어렵던 초보를 위한
기타교실 초급반이 시작됩니다.
기타교실과 함께 흥이 나는 삶이 찾아올 거예요!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기타강습이 시작됩니다.
회원님, 언제든 환영합니다!
(소모임 문의 : 02-338-2890)**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정원, 강정원, 김경희, 김동열, 김민경, 김성진, 김수환, 김요한, 김원우, 김은희, 김지혜, 김혜운, 문재연, 민준기, 민중기, 박혜진, 배옥자, 백경훈, 성희령, 신한나, 안분순, 안은정, 이연아, 이해원, 이향심, 장정열, 정필교, 주현지, 주혜명, 탁수정, 허승, 홍아현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회원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가람, 강경인, 강경화, 강공내, 강근정, 강기순, 강남식, 강동화, 강득록, 강명숙, 강미연, 강버들, 강보길, 강선미, 강영, 강영순, 강영화, 강인화, 강정원, 강정원, 강정희, 강지이, 강푸른, 강현구, 강현주, 강희진, 계경문, 고경자, 고금미, 고미라, 고보경, 고은별, 고재경, 고정남, 고정삼, 고혜경, 고화정, 고효주, 공훈옥, 박경화, 박옥미, 박윤이, 구민희, 권구홍, 권기현영, 권나현, 권명진, 권샘이, 권소영, 권은숙, 권인선, 권인숙, 권인자, 권정, 권주희, 금철영, 기푸름, 김가형, 김가희, 김강자, 김경선, 김경아, 김경태, 김경현, 김경호, 김경훈, 김경희, 김광만, 김광진, 김금신, 김기혜, 김나연, 김나영, 김나현, 김남현, 김다미, 김다은, 김다원, 김대숙, 김동래, 김동령,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들순, 김명숙, 김문빈, 김문찬, 김미경, 김미라, 김미랑, 김미선,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미주, 김민경, 김민규,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환, 김범은, 김보경, 김보연, 김보화, 김상미, 김상정, 김상호, 김셋별, 김석제, 김선경, 김선미, 김선아, 김선에, 김선애, 김선화, 김선희, 김성동, 김성동, 김성주, 김성주, 김세중, 김세훈, 김소연, 김수민, 김수민, 김수연, 김수진, 김수진, 김순자, 김아람, 김아름, 김아리, 김안나, 김애라, 김양지, 김엘림, 김연경, 김연경, 김연우, 김연희, 김영미, 김영서, 김영선, 김영수, 김영숙, 김영선, 김영환, 김예람, 김옥주, 김요한, 김요한, 김용란, 김우희, 김원식, 김원정, 김유민, 김유숙, 김유진, 김유진, 김윤경, 김윤정, 김윤희, 김은경, 김은아, 김은정, 김은하, 김은희, 김웅진, 김이슬, 김인숙, 김인혜, 김일분, 김재원, 김재원, 김재윤, 김재훈, 김정민, 김정수, 김정완, 김정혜, 김중수, 김중용, 김중희, 김주영, 김준호, 김지선, 김지연, 김지연, 김지은, 김지찬,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훈, 김진욱, 김진형, 김차연, 김재주, 김탁환, 김태섭, 김태연, 김택진, 김하나, 김하정, 김학실, 김한선혜, 김해경, 김현, 김현란,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경, 김형수, 김혜경, 김혜련, 김혜민, 김혜숙, 김혜승, 김혜연, 김혜영, 김혜영, 김혜정, 김혜진, 김혜진, 김호겸, 김화숙, 김화영, 김효선, 김효주, 김효주, 김효진, 김효진,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나경미, 나미나, 나선영, 나유미, 나윤경, 나인선, 나재은, 남길석, 남문희, 남민영, 남영미, 남인순, 남정현, 남현미, 남현우, 남혜정, 노길옥, 노미선, 노복미, 노선이, 노유성,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터트리그룹(주), 도병옥, 도상금, 등건호, 라길자, 류란, 류종현, 류진분, 마경민,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기재연, 문미라, 문미정, 문성훈, 문수연, 문숙영, 문지영, 문지영, 문희진, 문희영, 미씨유림, 민정원, 민준기, 박경훈, 박다위, 박덕민, 박명숙, 박명식, 박미라,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숙, 박미영, 박미향, 박미현, 박민주, 박병연, 박보영, 박상규, 박상희, 박상희, 박서원, 박선숙, 박선희, 박설희, 박성주, 박성훈, 박세민, 박세정, 박소라, 박소림, 박소연, 박수경, 박수연, 박수지, 박수진, 박숙미, 박순복, 박아름, 박아름, 박영, 박영수, 박영주, 박윤미, 박윤숙, 박윤주, 박은경, 박은미, 박은자, 박은진, 박은혜, 박인기, 박인필, 박정순, 박정연, 박정오, 박정옥, 박정은, 박정은, 박종은, 박종은, 박종주, 박주연, 박준연, 박준숙, 박준숙, 박지나, 박지영, 박지현, 박진숙, 박진표, 박장경, 박현달, 박현배,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현희, 박혜진, 박혜진, 박효정, 박희연, 박희주, 반성매대이름, 방기연, 방은재, 방이슬, 배경, 배복주, 배영자, 배은경, 배자하, 배정원, 배정철, 백명숙, 백미순, 백선희, 백선희, 백성길, 백세희, 백인에, 백지선, 백현, 백혜랑, 변계희, 변순연, 변은미, 상묵스님, 서권일, 서명선, 서명호, 서미현, 서민지, 서범리, 서순진, 서예린, 서용원, 서윤숙, 서정애, 서정연, 서정표, 서지은, 서태자, 서혜인, 서희숙, 서희순, 선희갑, 설연자, 성나리, 성지은, 소희, 손경이, 손동희, 손명구, 손명화, 손미연, 손연성, 손우성, 손준성, 손홍성, 송민성, 송석진, 송수영, 송승훈, 송요신, 송원규, 송은숙, 송지선, 송호균, 슴, 신겸우, 신경태, 신고운, 신동현, 신명숙, 신문창, 신상수, 신상호, 신선애, 신성용, 신원재, 신윤진, 신은재, 신정혜, 신종필, 신종훈, 신지혜, 심소영, 심수희, 심지원, 심진섭, 심현실, 심혜연, 안민, 안병숙, 안보라, 안분순, 안윤정, 안재훈, 안정미, 안정은, 안주리, 안창해, 안철민, 안초롱, 안태희, 안희영, 안희영, 안희순, 안홍진, 안홍자, 압하어, 양동홍, 양무현, 양미즈, 양민희, 양성옥, 양수인나, 양영희, 양윤희, 양은주, 양정운, 양진진, 양창수, 양현경, 양현주, 양효준, 엄인숙, 오경희, 오선곤, 오선호, 오세희, 오승환, 오수연, 오숙희, 오승민, 오승이, 오승환, 오재형, 오정진, 오정희, 오주연, 오지원, 오진아, 오현주, 우광재, 우성희, 우안녕, 우완, 우정희, 우준희, 원경주, 원민경, 원민혜, 원성재, 원순경, 원창연, 원형섭, 유걸, 유경희, 유계옥, 유백숙, 유상열, 유선옥, 유선진, 유세정, 유숙조, 유여원, 유예리, 유정연, 유정호, 유지혜, 유하, 유혜숙, 유현미, 유환숙, 윤나래, 윤범석, 윤소정, 윤소희, 윤수련, 윤수연, 윤숙경, 윤애리, 윤양지, 윤연숙, 윤영란, 윤영수, 윤영숙, 윤영호, 윤영흠, 윤용미, 윤자영, 윤정희, 윤종관, 윤종옥, 윤지연, 윤지원, 윤희영, 음선화, 이가람, 이경진, 이경미, 이경미, 이경선, 이경숙, 이경호, 이경호, 이경환, 이계형, 이계형, 이고운, 이광숙, 이규화, 이금란, 이김명란, 이나래, 이나영, 이남주, 이동규, 이동숙, 이동원,



이동현, 이든, 이명숙, 이명숙, 이명신, 이명희, 이문주, 이미경, 이미정, 이미정, 이민정, 이민휘, 이민휘, 이병래, 이병주, 이보라, 이보라, 이복희, 이부덕, 이상미, 이상연, 이상은, 이상재, 이상준, 이새롬, 이서지, 이선영, 이성수, 이성이, 이성진, 이세원, 이소미, 이소영, 이소은, 이소희, 이송이, 이수안, 이수연, 이수진, 이승구, 이승선, 이승숙, 이승진, 이시현, 이안, 이어진, 이연실, 이연정, 이영근, 이영기, 이영란, 이영미, 이영아, 이영자, 이영주, 이영주, 이영택, 이용창, 이옥영, 이원경, 이원경, 이원홍, 이유정, 이유정, 이윤상, 이윤선, 이윤옥, 이윤희, 이은, 이은비, 이은심, 이은애, 이은영, 이은지, 이인숙, 이인환, 이인혜정, 이재순, 이재원, 이정봉,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은, 이정화, 이정화, 이정효, 이종국, 이종근, 이종희, 이준별, 이준형, 이지민, 이지선,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지혜, 이진아, 이찬희, 이창원, 이창윤, 이충원, 이태숙, 이태호, 이태호, 이한종태, 이해사랑, 이향심, 이향화, 이현숙, 이현정, 이현희, 이혜정, 이혜일, 이혜정, 이호중, 이호진, 이홍연, 이희경, 이희수, 이희숙, 이희영, 이희화, 임복선, 임선자, 임수연, 임순영, 임승환, 임유영, 임유청, 임자영, 임주현, 임주희, 임지숙, 임지선, 임지선, 임홍실, 임희운, 장규형, 장다혜, 장다혜, 장미정, 장민경, 장성희, 장영아, 장영애, 장예지, 장유진,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익수, 장인중, 장재은, 장정열, 장정희, 장희인, 장혜란, 장효정, 재단법인동천, 전동일, 전미숙, 전민주, 전병미, 전세화, 전승기, 전아람,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유경, 전은유, 전정옥, 전정현, 전지현, 정경수, 정경아, 정경애, 정경자, 정광, 정교화, 정귀원, 정규리, 정다미, 정다희, 정대근, 정덕기, 정동연, 정두영, 정명중, 정문영, 정민이, 정보람, 정복련, 정설희, 정세원, 정소린, 정수연, 정수연, 정숙경, 정슬아, 정여진, 정영석, 정영선, 정예지, 정옥실, 정유림, 정유석, 정윤정, 정은선, 정은숙, 정은지, 정은희, 정인호, 정정기, 정정희, 정정희, 정준애, 정지현, 정지훈, 정진옥, 정진화, 정창수, 정혜랑, 정현, 정현희, 정혜윤, 제갈향선, 조계삼, 조규선, 조난단 가이 파울러, 조민우, 조상희, 조서연, 조선주, 조세영, 조소연, 조소연, 조영선, 조윤경, 조은샘, 조은숙, 조은정, 조은희, 조인석, 조인섭, 조인옥, 조일래, 조재욱, 조정은, 조중신, 조지혜, 조진희, 조현아, 조혜민, 조희경, 존타클럽, 주광용, 주리아, 주병희, 주혜명, 주혜정, 주희진, 지승경, 지은정, 지인숙, 지현우, 진새롬, 진태란, 차성안, 차인순, 차현영, 채송희, 채송희, 채우리, 채원숙, 천정환,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최강원, 최경식, 최광락, 최광식, 최대연, 최대용, 최동석, 최란, 최미선, 최미수, 최보원, 최보원, 최선규, 최선아, 최성욱, 최성희, 최수연, 최수인, 최숙희, 최승연, 최진혜, 최아람, 최연순, 최영숙, 최영애, 최영지, 최옥경, 최양열, 최용득, 최용범, 최용환, 최원일, 최유미, 최유진, 최윤미, 최윤수, 최윤정, 최윤정, 최은석, 최은영, 최은영, 최정림, 최정은, 최정일, 최정희, 최정희, 최지나, 최지나, 최지영, 최진경, 최진안, 최현희, 최효선, 추민주, 추정희, 추주형, 추지현, 추혜인, 코니, 클럽미즈9 라미체의원, 편경자, 하연수, 하은주, 하종석, 하주선, 하주현, 한경아, 한계영, 한국어아자키마작(주), 한국어성인우회, 한기모, 한문형, 한미화, 한보경, 한수현, 한순진, 한승희, 한영규, 한영미, 한진부녀회, 한지숙, 한채운, 한희정, 함경진, 해미빈, 허경현, 허남주, 허라금, 허복옥, 허순만, 허승, 허은주, 허이화, 허정연, 허정희, 허준석, 허현, 허효정, 현정순, 혜장스님, 홍광용, 홍남영, 홍만희,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승기, 홍순기, 홍윤기, 홍은정, 홍일선, 홍재진, 홍주연, 홍진경, 홍혜선, 황동하, 황미선, 황보선경, 황선우, 황성기, 황성인, 황승희, 황승희, 황유나, 황은순, 황재호, 황정인, 황정진, 황주영, 황지성, 황지영, 황지운, 황희창, 후원장터JOCEL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와 열림터를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강대열,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강학중, 고정남, 광미정, 권윤진, 권익승, 권진구, 권형구, 김경현, 김덕현, 김병희, 김미주, 김선영, 김소연, 김옥란, 김재련, 김경희, 김준길, 김진영, 김태진, 김혜정, 김화영, 김효선, 김희숙, 김희정, 나인선, 노주희, 니콜라, 레나레닛, 명진숙, 문경란, 문태란, 민남기, 박기원, 박미란, 박상순, 박윤숙, 박윤순(YM건설), 박인필, 배경, 배삼희, 배정철, 변대규, 변혜정, 손용석, 시연숙, 신동연, 신상호, 신혜정, 안백린, 안형정, 야기 시노부, 우기호, 유소영, 유효상, 이경환, 이경훈, 이기철, 이동림, 이명신, 이명숙, 이미정, 이병규, 이병우, 이상구, 이상순, 이안나,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유미, 이유미, 이유정, 이해사랑, 이화영, 이효숙, 임미화, 임순영, 장윤경, 장필화, 전성혜, 정경자, 정몽훈(주 효광), 정안나, 정영택, 정재정, 정진옥, 정취재, 조선혜, 조영황, 조인석, 조일래, 조혜옥, 주관수, 천수빈, 천정환, 청담마리산부인과, 최보원, 최영애, 최정순, 한국텔레크, 허정, 홍성기, 홍순기, 홍승아

{ 국제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체회원 일괄등록 안내 }

2015년 연말에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한국성폭력상담소도 국제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전체회원을 일괄등록 하려고 합니다. 등록을 원치 않으시는 회원님께서서는 상담소 또는 열림터로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_ 02-338-2890 선민, 02-338-3562 열림터)

※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가 변경되신 회원님께서서는 꼭 상담소 또는 열림터로 알려주세요!